

더 알차진 안전·편의 사양...현대차 '더 뉴 캐스퍼' 출시

광주글로벌모터스 생산 경형 SUV...3년만에 상품성 개선 모델 프리미엄 트림 출시가 2740만원...10월 출고 고객 다양한 혜택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생산하는 '캐스퍼'가 더욱 인상적인 외관과 상품성, 편의사양을 강화한 내관기능을 탑재한다. 현대차는 21일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캐스퍼의 상품성 개선 모델인 '더 뉴 캐스퍼'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더 뉴 캐스퍼는 2021년 캐스퍼 출시 이후 3년 만에 선보이는 상품성 개선 모델로, 단단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외관을 개선하고, 고객들이 선호하는 안전·편의사양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외관을 살펴보면 더 뉴 캐스퍼의 전면부는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적용된 블랙하이그로시 라디에이터 그릴과 프론트 범퍼, 스키드 플레이트가 이전보다 더 강인한 인상을 만들어냈다. 후면부의 리어 범퍼와 스키드 플레이트도 전면부와 같은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줬다.

더 뉴 캐스퍼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주행 시 차체를 둘러싼 공기 흐름을 최적화하는 휠 디자인을 적용해 기존 모델 대비 6% 가량 개선된 0.34의 공력계수를 달성했다. 안전사

양은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ISLA)와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 탑재됐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을 추가 사양으로 구성했다.

또 동승석 도어에 버튼 타입 스위치를 추가해 문을 여닫을 때 편의성을 향상했고, 정차 시 제동 상태를 유지해주는 오토홀드 기능이 포함된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도 추가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해선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비롯해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OTA), 현대 카페아, 카투홀, 자연어 음성인식 등의 기능이 담긴 시스템이 탑재됐다. 기존에 옵션으로 제공되던 후방 모니터와 폴오도 에어컨 등을 기본화했다.

주행 성능 면에선 엔진룸의 진동과 소음을 줄여주는 절연 부품인 엔진 마운트 인슐레이터의 크기를 키우고, 차체와 스티어링을 연결해주는 카울 크로스바의 강성을 증대시켰다. 더 뉴 캐스퍼는 외장 컬러로는 시에나 오픈컷 메탈릭과 어비스 블랙 필 등 2종이, 실내 색상은 베이지와 오렌지 브라운 투



톤 실내 컬러가 추가됐다. 현대차는 캐스퍼 일렉트릭의 기본형 모델인 '프리미엄 트림'을 새롭게 선보인다.

캐스퍼 일렉트릭 프리미엄 트림은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법인이 생산하는 42kWh(킬로와트시) 용량의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탑재해 278km에 달하는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확보했다.

아울러 10.25인치 내비게이션과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등 고객 선호 사양들을 기본으로 적용했다.

캐스퍼 일렉트릭 프리미엄 트림은 출시가 2740만원에서 책정돼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혜택을 받



현대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캐스퍼의 상품성 개선 모델인 '더 뉴 캐스퍼' 내·외관.

을 경우 1000만원대 구매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더 뉴 캐스퍼 출시를 기념해 10월 출고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더 뉴 캐스퍼 10월 출고 고객 전원에게 '조구만' 캐릭터 콜라보 열쇠고리를 증정하고, 같은 달 계약 및 출고 고객 중 150명을 추첨해 텀블러와 전화번호판 등이 포함된 '조구만' 콜라보 기프트 박스를 제공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 뉴 캐스퍼는 기존 캐스퍼의 강점은 유지하면서도 SUV만의 강인함을 부각시키면서 고객 선호 사양들을 보강해 상품성을 강화했다"며 "더 뉴 캐스퍼는 캐스퍼 일렉트릭과 함께 고객 라이프 스타일을 전방위적으로 만족시키는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이노뷰' 압도적 경기력으로 7·8R 포디움 달성

'현대 N 페스티벌' 전기차 레이싱

금호타이어의 전기차 전용 레이싱 타이어 이노뷰(EnnoV)를 장착한 차량이 전기차 경주대회에서 잇따라 우승을 차지했다.

2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솔라티 인디고 레이싱' 팀 드라이버 박준의와 금호 SL모터스포츠팀 소속 이창욱은 지난 19일-20일 강원도 인제스포디움에서 열린 현대N페스티벌 eN1 클래스 7, 8라운드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금호타이어를 장착한 박준의, 이창욱은 수준 높은 주행 능력과 타이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eN1 클래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차종 레이싱인 '현대 N 페스티벌'의 전기차 레이싱이다. 특히 이번 클래스는 현대차가 아이오닉 5N 기반으로 제작한 원메이크 EV 레이싱카인 'IONIQ 5 eN1 컵'이 사용되며, 금호타이어 전기차 전용 레이싱 타이어 이노뷰가 장착된다.

이노뷰는 금호타이어의 최첨단 기술이 함축된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EV 전용 컴파운드를 사용해 고속 주행 중에도 탁월한 접지력과 안정적인 핸들링 성능을 제공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금호 SL모터스포츠팀 드라이버 이창욱(가운데)이 포디움을 달성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기아,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 전시

다음달 2일까지 서울 성수동 '스페이스 S1'...아티스트들 공연도



서울 성수 오퍼짓 유나이티드 전시장 전경.

기아는 다음달 2일까지 서울 성수동 '스페이스 S1'에서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티드'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 전시를 한다.

기아는 지난 4월 글로벌 최대 디자인 축제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 참여해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주제로 단독 전시를 해 호평을 받아 국내서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밀라노 행사장에는 당시 관람객 1만5000여명이 방문했다.

기아는 밀라노에서 전시한 작품을 기반으로 전시를 재구성하고 아티스트들의 공연도 마련한다. 관람객은 전시장에서 기아의 문화적 활동을 발자취로 형상화한 북도, 지치지 않는 혁신의 공간, 창의적 모험가의 공간, 동반자의 다짐을 보여주는 공간을 순서대로 볼 수 있다.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재해석한 작품들도 체험할 수 있다.

또 전시 기간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에는 씨피카, 오토라 등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선보이는 공연도 진행된다. 전시장 운영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공연이 있는 금·토요일은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모든 전시와 공연은 무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기차 가격, 2026년 내연차와 비슷해진다"

배터리 제조 기술 발달 가격 하락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고전하는 가운데 오는 2026년에는 배터리 제조 기술 발달과 원소재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전기차 가격이 내연차와 비슷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컨설팅 기업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kWh(킬로와트시)당 149달러(약 20만4100원)였던 전기차 배터리 평균 가격이

올해 말 111달러 수준까지 낮아지는 데 이어 2026년에는 82달러선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2026년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전기차 가격이 내연차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경제적 관점에서 2026년에는 전기차 수요가 강력하게 살아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배터리 기술 혁신과 리튬, 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 광물 가격 하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배터리 업계에서는 셀투팩(기존 배터리 구

성에서 모듈 단계를 제거하고 팩에 직접 셀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 등 배터리 기술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리튬 등 배터리 핵심 원소재 가격이 최근 3년 내 최저 수준에 머무르는 점도 긍정적이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코미스)에 따르면 리튬 가격은 이달 17일 기준 kg당 70.5위안(약 1만3570원)으로, 2022년 11월 1일 사상 최고인 kg당 581.5위안을 기록한 이후 약 88% 하락했다. 리튬은 양극재 원가 중 60~7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다. 배터리 셀 제조 원가의 15~20%를 차지하는 니켈 가격 역시 t당 1만6630달러 수준으로, 2022년 3월 최고가 대비 60%가량 하락했다. /연립뉴스

벤츠, 어린이 450명 참여 환경교육 체험 캠프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지난 20일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그린플러스 빌리지' 환경교육 체험 캠프를 진행했다. <사진> 그린플러스 빌리지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환경교육 캠페인 '그린플러스 키즈'의 일환으로, 이번 캠프는 총 45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참가 어린이들은 '탄소를 줄이는 선택, 어린이도 할 수 있어!'라는 주제로 헌 티셔츠를 활용해 장바구니를 만들고, 페플라스틱으로 만든 비즈로 개인 스트랩을 만드는 등 환경교육 활동을 체험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마티아스 바이를 의장은 "이번 그린플러스 빌리지를 통해 미래 세대들이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고, 환경을 소중히 여기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린 리더'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그린플러스 키즈'는 2021년 시작해 누적 4만 명의 초등학생들이 참여했으며, 교육 효과성을 인정받아 2023년 10월 환경부로부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된 바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렉서스 복합 문화 공간 '커넥트투' 개장 10주년 리뉴얼 오픈

렉서스의 복합 문화 공간 '커넥트투' <사진>가 개장 10주년을 맞아 리뉴얼 오픈했다.

21일 렉서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서울 잠실롯데월드몰에 문을 연 커넥트투가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테마로 재단장했다.

커넥트투는 '더 좋은 자동차 만들기'에 대한 브랜드 철학을 전달하고자 'TOYOTA GAZOO Racing' 존과 렉서스의 장인 정신을 '크래프트맨십' 존을 새롭게 선보이고, 고객 전용 프라이빗 공간인 '오너스 라운지(OWNERS LOUNGE)'를 운영한다.

방문을 원하는 렉서스 및 토요타 오너는 오는 11월 1일부터 커넥트투 네이버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커넥트투는 또 차세대 배터리 전기차 '렉서스 일렉트릭라이프 스포츠 콘셉트'를 국내 최초로 전



시한다. 렉서스 중형 SUV인 'NX 450h+ F SPORT' 등 전동화 라인업도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 렉서스의 최신 전동화 라인업을 일일 최대 6시간까지 단독 시승할 수 있는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약은 11월부터 커넥트투 네이버로 신청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대차 배터리 개발 기술인력 신규 채용

현대차는 21일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기술인력 채용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현재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 가속화를 위해 의왕연구소에 연구동을 설립 중이고, 채용된 기술인력은 내년부터 이곳에서 일하게 된다.

배터리 기술인력이 수행할 업무는 ▲배터리 샘플 제작 및 품질 관리 ▲개발 장비 유지 및 보수 ▲소재 및 부품 관리 등이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연령·성별 제한은 없다. 서류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서류 합격자는 11월 중 발표된다. 이어 12월 1차 면접, 내년 1월 최종 면접과 신체검사를 거쳐 내년 2월 중 최종합격자가 결정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안정적인 소재 확보부터 배터리 설계 및 관리, 차세대 배터리 개발 등 배터리 전 영역을 아우르는 기술 역량을 갖춘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